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오성첨단소재(052420)

하드웨어/IT장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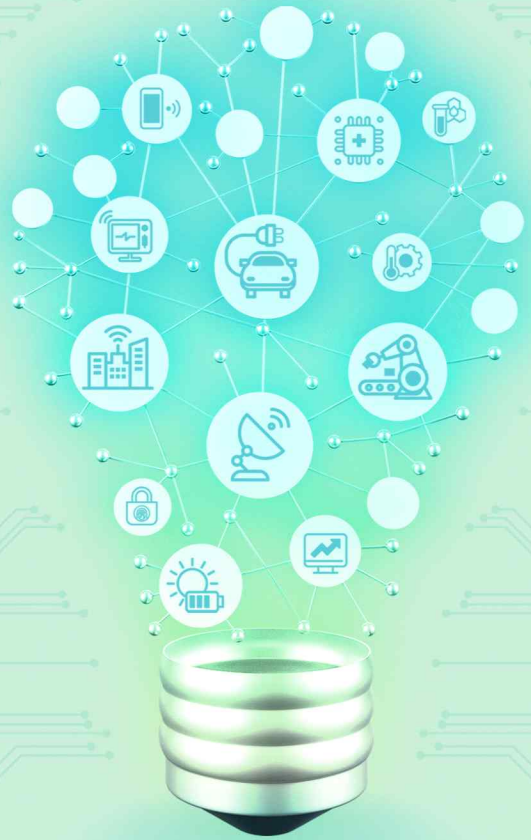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신명관 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39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오성첨단소재(052420)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기업정보(2020/01/22 기준)

대표자	이장원
설립일자	1994년 06월 22일
상장일자	2001년 08월 07일
기업규모	중기업
업종분류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주요제품	보호 필름, 기능성 필름 등

시세정보(2021/01/22 기준)

현재가(원)	502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3,403
발행주식수(주)	67,734,803
52주 최고가(원)	5,800
52주 최저가(원)	1,310
외국인지분율	0.39%
주요주주	이스트버전디 외 2

■ PET 보호필름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확보

오성첨단소재(주)는 1994년 설립한 뒤, 200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2018년 사업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현 상호로 변경하였다. 2020년 9월 말 기준, 상시종업원 91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관계회사로는 오성엘에스티(주), 에스팩(주)가 있고, 종속회사로는 카나비스메디칼(주), ㈜더블라썸목동, 루미테크놀로지앤 대부(주), 에스파이낸셜 대부(주)가 있다.

■ 보호 필름, 기능성 필름, 열차단 필름 등의 소재사업

오성첨단소재(주)는 디스플레이 광학용 보호/기능성 필름을 생산하는 소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보호 필름, 기능성 필름, 열차단 필름 등이 있고,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자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용도의 기능 향상을 위한 편광판 보호필름, Harding Coating, NCD 필름, Prism Back-Coating, 비산방지 필름, Anti Glare, IR 필름, NCF(OCA) 필름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가 및 품질 등의 사업경쟁력 차별화

오성첨단소재(주)는 태양광 사업의 부진으로 2017년 장비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FPD 기능성 광학 필름의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사업의 영속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신 가치창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지속적으로 경영을 혁신하는 창조적 혁신, 최고의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경쟁력을 차별화하는 기술 중심 경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변화와 도전으로 끊임없는 사업의 혁신(제품 기술, 서비스)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고객만족 우선의 기술력, 품질, 고객서비스, 납기,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며, 미래 신성장 사업을 위한 신제품, 신기술, 신사업을 창출하여 다각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306	-31.93	26	8.53	11	3.47	1.79	1.21	46.23	33	2,340	166.61	2.38
2018	441	44.08	7	1.65	55	12.47	5.27	4.24	11.59	128	2,663	16.78	0.81
2019	666	51.02	19	2.90	146	21.92	9.68	7.77	30.87	265	2,813	9.99	0.94

기업경쟁력

광학필름 제조 기술력 확보

- 디스플레이 광학용 보호/기능성 필름 등 다양한 제품군 보유 및 기술 확보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품개발 실적, 연구개발과제 실적 다수 보유

매출 성장을 위한 소재 국산화

- 일본 등 외국에 의존하던 PET 보호필름 국산화 성공
- 품질 및 제품 가격 등의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중국, 대만 등) 시장 확대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사업분야
 - 편광판 및 공정용 보호필름, NCF(OCA), 비산방지 및 Dicing 필름 제조
 - FPD 디스플레이 및 TSP용 LR, H/C, AF, AG 필름 제조
 - IR-cut(열차단) 필름 제조
- 제품생산 능력
 - 연간 생산 Capacity: 30,000,000m²/year
 - 월 평균 가동시간: 43,200분(수율: 95%, 가동률: 90%)
 - 주력 제품: FPD 기능성 광학 필름(PET 보호필름, NIR 필름, NCF, IR 필름 등)

주요제품

■ 보호 필름



■ 기능성 필름



■ 열차단(IR-cut) 필름



제품 별 매출 비중(2020년 3분기)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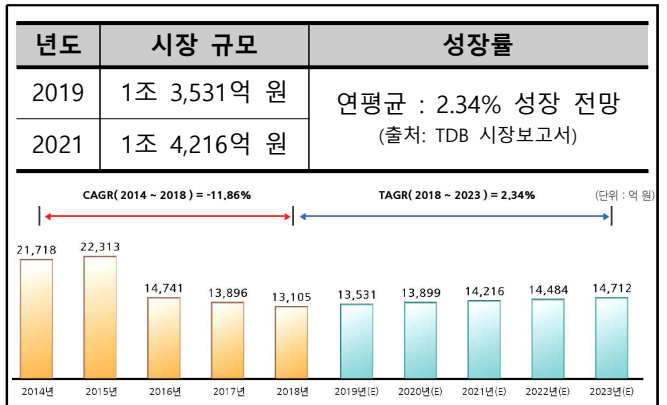
		매출액	비중(%)
DISPLAY 소재	편광판용 보호필름	52,548	86.94
	복합소재	2,345	3.88
	임가공 등	5,174	8.56
	기타(임대)	376	0.62
합계		60,443	100.00

시장경쟁력

고객만족을 위한 판매전략

-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시장 공략
- 기술 Trend를 선도하는 신상품의 지속적 출시
- 국내시장 지배력 강화 및 해외시장(중국, 대만) 영업확대
 - 국내시장의 안정적 점유율 확보 및 신규 고객 개발
 - 해외 고객사 니즈에 부합하는 신규제품 개발 및 영업

시장 규모



최근 변동사항

설비 증설 및 마리화나 사업 투자 확대

- 설비증설
 - 고객사 주문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납기 대응을 위한 설비 증설
 -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와 원가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
-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 투자 확대
 -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마리화나 사업 본격화
 - 100% 자회사 카나스비메디칼 설립하여 30억 원 연구비 투입
 - 의료용 마리화나 화학물질 '칸나비노이드' 연구개발

I. 기업현황

디스플레이 소재 부문의 기술 노하우 축적

동사는 디스플레이 소재 부문의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광학용 보호/기능성 필름 등의 제조사로,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시장 지배력 강화 및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 회사 연혁 및 주요 사업 분야

오성첨단소재(주)(이하 ‘동사’)는 TFT-LCD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제작을 목적으로 1991년 개인기업인 오성과학으로 창립하였다. 1994년 (주)오성과학으로 법인전환, 1999년 상호를 오성엘에스티(주)로 바꾸고, 2001년 기업부설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004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신기술 으뜸상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량기술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되었다. 2006년 LCD 전공정의 장비 사업에 진출, 2007년 태양전지용 잉곳과 웨이퍼를 개발하여 솔라 사업에 진출, (주)수성케미칼을 흡수합병하고 FPD용 기능성 소재필름 사업에 진출했으며, 2010년 태양광 발전용 솔라 셀 웨이퍼(Solar Cell Wafer) 제조기술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2013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와 워크아웃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체결하고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갔고, 2015년 태양광 사업부문 매각 결정, 2016년 에스맥(주)로 최대주주 변경, 2017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으로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에서 해제되었다.

2017년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18년 장비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오성엘에스티(주)에서 오성첨단소재(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의료용 마리카나 성분 연구개발 사업에 진출했다.

2020년 3월 사업역량의 집중을 위해 본점 소재지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31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석암로 17길 104(익산공장)으로 변경하였고, 2019년 5월 청년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주)더블라썸목동, 2020년 6월 추가 지분 확보로 루미테크놀로지앤 대부(주), 2020년 9월 신규설립으로 에스파이낸셜 대부(주)를 종속회사로 편입하였다.

동사는 2019년 12월말 현재 총자산 111,493백만 원, 자기자본 76,344백만 원, 2018년 9월말 기준 상시종업원 78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을 영위중이며, 주력 사업은 FPD 기능성 광학 필름 제조이다. 관계회사로는 오성엘에스티(주), 에스맥(주)가 있고, 종속회사로는 카나비스메디칼(주), (주)더블라썸목동, 에스파이낸셜 대부(주)가 있다.

[그림 1] 동사 전경



*출처 : 동사 홈페이지

■ 대표이사 정보 및 경영진

대표이사 이장원(1963년생, 남)은 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새한미디어(주)에서 디지털판매팀장, 오성첨단소재(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동사의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동사의 대표이사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기술의 시장 및 수요분석을 진행하여 주력 사업을 위한 실현가능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관련 목표관리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활발한 대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사내이사 조경숙(경영관리), 사내이사 김경윤(감사) 2명이 실질적으로 상근, 기타 경영진으로서 경영진과의 상호 우호적 협력관계를 통해 조직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최대주주는 (주)이스트버건디 외 2로, 최대주주의 대표이사는 조경숙이며, 지분 100%이다.

[표 1] 주요 주주 구성

주요 주주	대표이사와의 관계	주식(주)	지분율(%)
(주)이스트버건디	최대주주	3,120,320	5.04
(주)풀라버텍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073,140	4.96
메타오라조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538,461	2.48
에스맥(주)	관계회사	3,024,794	4.88
(주)금호에이치티	관계회사	3,589,743	5.79
계		17,295,041	23.15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 주력 제품 및 판매전략

동사는 디스플레이 광학용 보호/기능성 필름을 생산하는 소재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Capacity는 30,000,000m²/year이고, 주력 제품으로는 보호필름, 기능성 필름(UV Guide Film, UV Dicing Tape, 비산방지필름 등), 열차단 필름(IR CUT Film 등) 등이 있으며, 최근 기업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2월 장비사업부를 물적분할 하였다.

주력 제품인 PET 보호필름은 TV, 모니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OLED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제품과 고기능성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외 디스플레이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 및 상시적 관리를 통해 투자사의 기회 선점에 대응하는 영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전통적 디스플레이 강국인 대만 및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일본 등의 외국에 의존하던 PET 보호필름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제품을 출시하여 2006년도부터 국내와 대만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품질 및 제품가격 등의 경쟁력우위를 바탕으로 해외 고객사 Needs에 맞는 특성 있고, 경쟁력을 갖춘 신규 제품 지속적 개발 및 중국 시장 영업 활동 강화를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할 계획이다.

[표 2] 제품군별 매출 비중(2020년 9월 30일 기준)

사업부문	세부 항목	매출 비중(%)
디스플레이	편광판용 보호필름	86.94
	복합소재(기능성 필름, 공정용 보호필름)	3.88
	AS 코팅, VAE 필름 코팅 임가공	8.56
	기타	0.62
합 계		100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그림 2] 사업 분야



*출처 : 동사 홈페이지

II. 시장 동향

응용분야가 다양한 플라스틱 필름 산업

플라스틱 필름은 디스플레이, LED 등의 전기전자 산업, 태양전지 등의 에너지·환경 산업, 생활용 산업 등 제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수요가 안정적이고, 재료와 가공 기술의 발달로 응용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LCD 및 OLED 디스플레이 산업

[표 3] 평판디스플레이 구분		
구분	세부구분	세부항목
평판디스플레이	Traditional 디스플레이	PDP
		TFT LCD
		DLP Projection
	NEW 디스플레이	OLED, E-Paper
		Micro LED
		QLED

*출처: TDB 시장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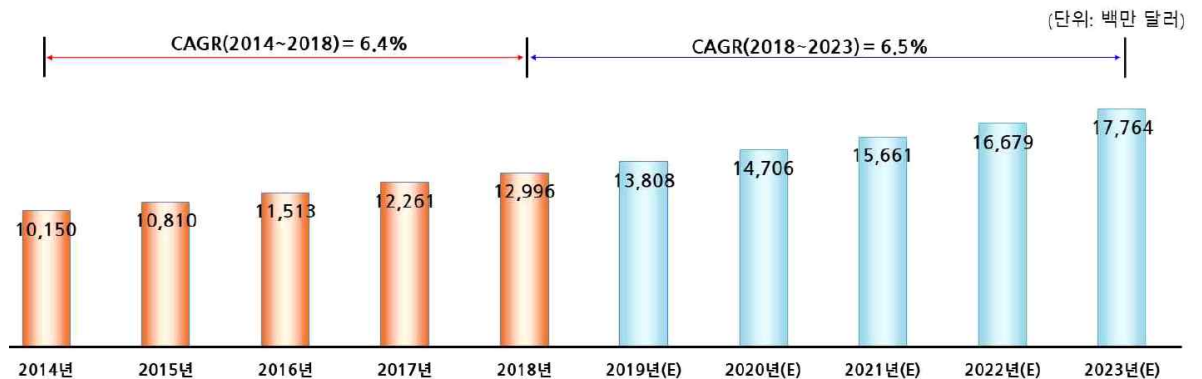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 산업은 디스플레이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이고, 디스플레이 산업은 OLED 산업 등으로 확장하여 국가 경쟁력의 핵심을 이루는 산업분야로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다.

LCD 산업은 다양한 전방산업이 존재하고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이며, 제조공정에서 제품치수가 대형화 된 제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의 규모가 크다는 특성과 관련 장비 산업과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적기투자가 중요하여 LCD 유리 기판 대형화에 따라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성 하락의 압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LCD 편광필름은 LCD 패널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소재로, 자연광을 받아들여 빛의 일정 방향 성분만 통과시키도록 편광 기능을 하는 광학 필름으로, LCD 편광필름 산업의 특징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고, 초기투자 비용이 크고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며, LCD 패널 업황에 민감한 산업으로 요약된다.

광업제조업 조사,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LCD 편광필름의 시장규모는 2014년 58,064억 원에서 2018년 56,641억 원으로 연평균 0.6%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3년까지 연평균 0.6% 감소하여, 5조 4,911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 LCD 편광필름의 시장규모는 2014년 10,150백만 달러에서 2018년 12,996백만 달러로 연평균 6.4%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3년까지 연 평균 6.5% 성장하여, 17,764백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세계 LCD 편광필름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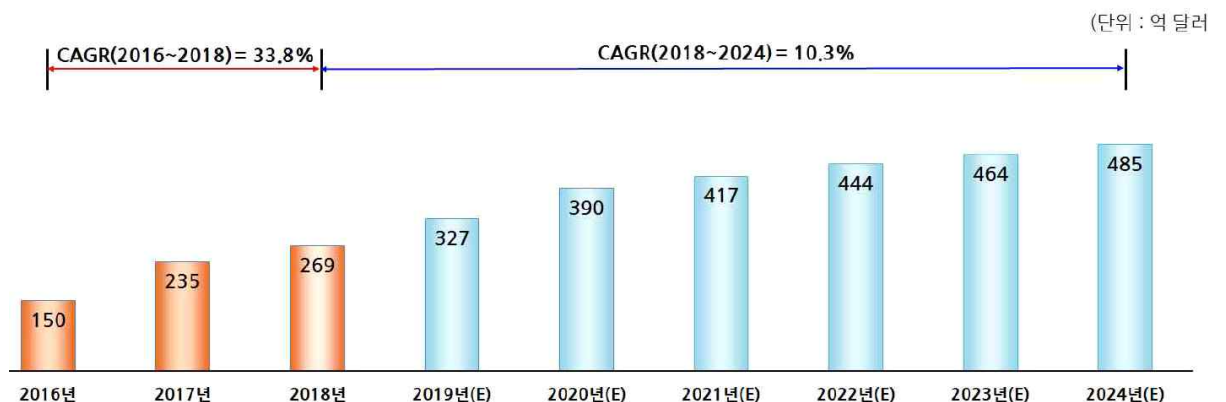


*출처 : Optical Film Market, Markets and Markets, 2019

한편, OLED 디스플레이는 자체 발광 소자인 OLED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며, LCD에 이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각광 받고 있고, 높은 색 재현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기존의 디스플레이 제품에 추가적인 특성을 부여한 새로운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TV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LCD에서 OLED 디스플레이로의 대체가 진행 중이고,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공공 시설물 등의 신규 시장 창출도 발생하고 있음.

OLED 디스플레이는 화질과 성능 측면에서 LCD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LCD 디스플레이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군 형성을 통해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증착 공정의 난이도 문제로 기존의 LCD에 비해 고해상도 구현이 어려웠으나 많은 부분이 극복됨으로써 UHD급의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한 초고화질 TV와 같은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고, 폴더블 스마트폰, 롤러블 TV 등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 OLED 디스플레이 수요처의 다변화가 예상되며, 곡면 성형이 가능한 특성을 활용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새로운 수요처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림 4] 세계 OLED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출처 : "Display Market-Forecast to 2024", Markets and Markets, 2019

“Display Market-Forecast to 2024” , Markets and Markets(2019)에 의하면 세계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8년 269억 달러 규모이며, 이후 연평균 10.3%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24년에는 485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8년 기준 세계 OLED 디스플레이의 적용 분야별 시장 점유율은 스마트폰 83.5%, TV 8.1%, 웨어러블 디바이스 2.9%, 태블릿PC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규모 글로벌 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국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이 68.5%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북미 27.8%, 유럽 3.2% 순의 비중을 보임.

■ 스마트폰, 스마트카 등 플라스틱 적층품 적용 전자제품 산업의 높은 성장성

플라스틱 적층품은 판상의 플라스틱제품의 표면에 접착물질, 금속물질 및 기타 물질을 도포, 도장·피복 등을 하여 만든 특수용 플라스틱 표면 가공품으로, 접착테이프는 제외한 플라스틱 적층판, 플라스틱 라미네이팅 등을 말한다.

플라스틱 적층품 산업은 전기절연재료, 인쇄회로기판 등의 제조 활동에 사용되는 기초부품을 공급하는 생산재 산업이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및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 등 환경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국내 출하금액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수출위주의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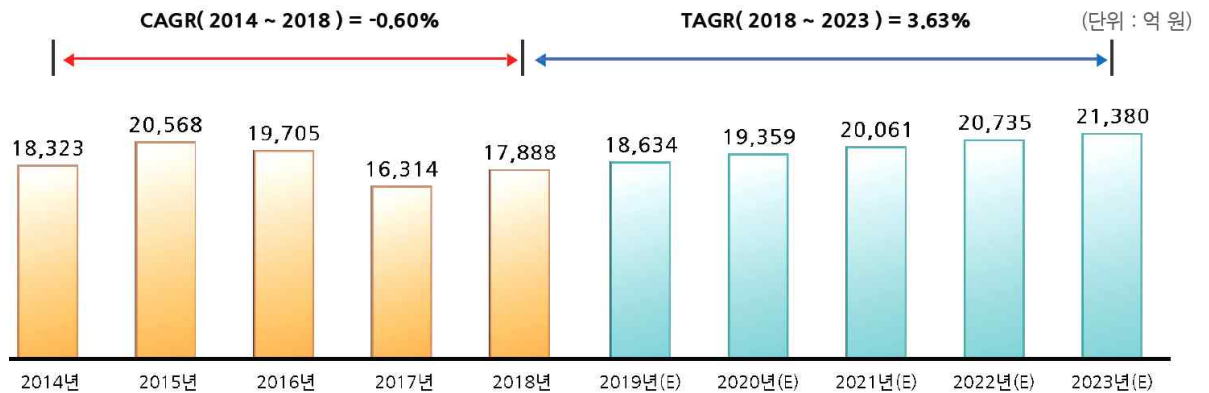
플라스틱 적층품은 주로 전기 및 전자산업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어, 전기 및 전자산업의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플라스틱 적층품의 Value Chain은 플라스틱 필름 → 플라스틱 적층품 →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 플라스틱 적층품 출하금액은 2014년 18,323억 원에서 2018년 17,888억 원으로 연평균 0.60% 감소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감안 시 이후 연평균 3.63% 성장률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1,38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업체당 평균 출하금액은 2014년 116억 원에서 2018년 99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플라스틱 적층품 시장은 신화인터텍, 린텍스페셜티필름코리아, 슈퍼젠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표 4] 플라스틱 적층품 전후방 산업

구분	후방산업(플라스틱 필름)	단열필름	전방산업(전기전자부품)
제품			
업체	엘지화학, 한화엘앤씨	신화인터텍, 린텍스페셜티필름코리아, 슈퍼젠코리아	인터플렉스, 에스아이플렉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2020)

[그림 5] 국내 플라스틱 적층품 출하금액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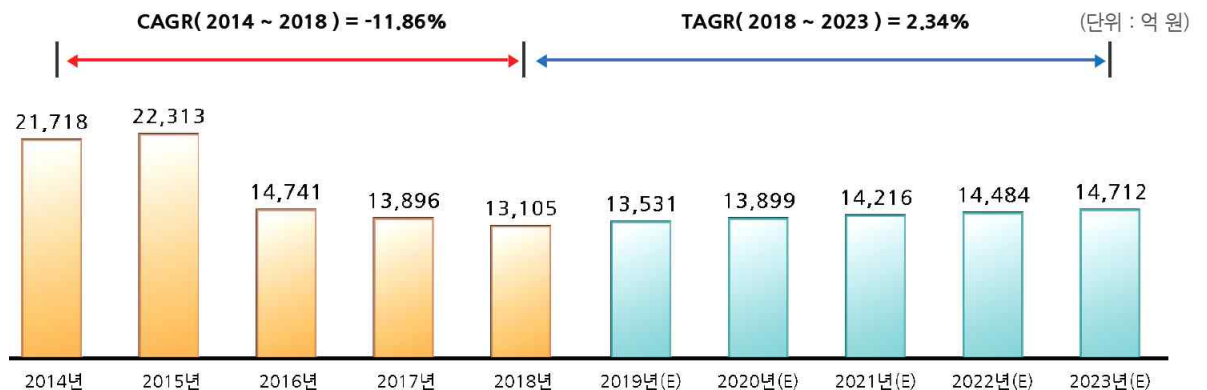
■ 다양한 산업제품에 적용되는 플라스틱 필름 산업

플라스틱 필름은 원료상태의 플라스틱 물질을 비발포 성형하여 제조한 필름 상의 포장용을 제외한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접착물질 등을 피복 및 도포한 것은 제외하고, 플라스틱 필름은 디스플레이용, 태양전지용, 생활용, 자동차 산업 등 응용분야가 다양하다.

플라스틱 필름은 전기전자, 건축, 생활,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및 부품 소재이고,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으로, 기업 간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원재료인 원유 및 고분자 수지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고, 국제유가 및 석유화학업계의 수급상황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이 초래될 수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필름(포장용 제외) 출하금액은 2014년 21,718억 원에서 2018년 13,105억 원으로 연 평균 11.86% 감소하였으며, 시장 환경, 업황 등을 감안 시 이후 연평균 2.34% 성장률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4,712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업체당 평균 출하금액은 2014년 141억 원에서 2018년 154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도레이첨단소재, 에스케이씨하이테크앤마케팅, 에스케이씨코오롱피아이, 삼동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6] 국내 플라스틱 필름 시장규모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Ⅲ. 기술분석

고객 요구의 신속한 대응 및 신규 제품에 대한 R&D 투자로 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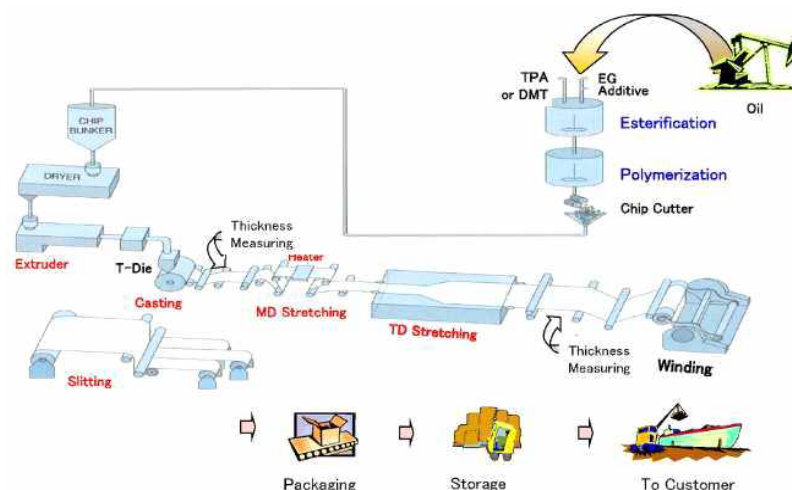
동사는 기술력 확보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설계에서 납품까지 고객과 시장의 상황에 신속히 반영하고 있고, 차세대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플라스틱 보호필름 제조 공정

일반적인 플라스틱 보호필름의 제조 공정은 코팅, 프린팅, 인쇄 단차제거, 필름 커팅, 라미네이션, 검사 및 출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원료 투입: 폴리에스터(PET), 기타 수지(Resin), 첨가제 등을 투입하여 혼합, 용융시킴.
- 2) 압출 성형: 용융된 폴리머가 T자의 다이에 해당하기는 부분에서 다이로 내려져, 다이 안에서 좌우로 확산되어 T자 위의 횡부분에서 압출됨.
- 3) 연신 및 결정화: 압출성형 공정을 거친 미 연신 PET 시트를 길이 방향 및 폭 방향으로 연신한 후 열 고정 공정을 거쳐 필름으로 형성.
- 4) 2차 가공(코팅 & 라미네이팅): 제품에 부여하고자 하는 기능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 보호필름의 경우 생략되기도 함.(PET 필름에 기능성 소재를 코팅 및 기능성 필름을 접착하는 방식의 라미네이팅(Laminating) 공정이 추가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면에는 점착제를 도포함)
- 5) 필름 커팅: 적용되는 제품의 넓이와 길이에 따라 절단함.

[그림 7] 플라스틱 보호필름 제조 공정



*출처 : Technical Data 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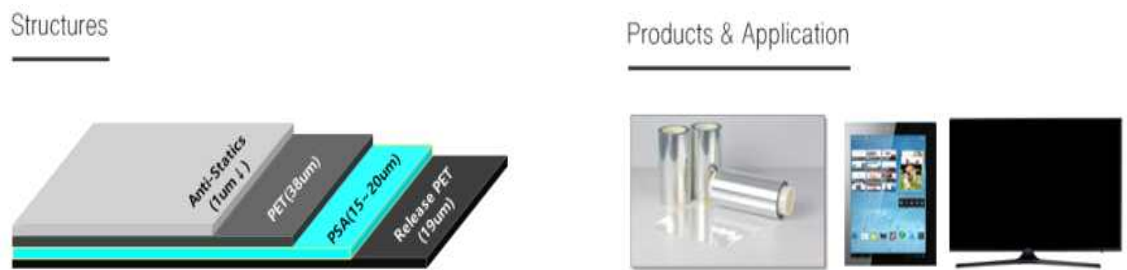
■ 동사의 주요 제품군(보호 필름, 기능성 필름, 열차단 필름)

동사는 PSA를 기반으로 한 편광판용 보호필름, 공정용 보호필름, NCF(OCA), 비산방지필름,

DICNG 필름, IR-Cut 필름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Needs에 대응하고자 차세대 디스플레이 용도의 기능 향상을 위한 LR, H/C, AF, AG 등을 개발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보호 필름, 기능성 필름, 열차단 필름 등이 있다.

보호 필름(Protective Film)으로는 Anti-Static Type과 Normal Type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LCD 편광필름 및 각종 자재의 표면보호용으로 사용되고, 두께 72~77um, 투과율 90%, Haze 5%의 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적용분야로는 Smart Phone, Notebook, Monitor, TV 등이 있다.

[그림 8] 보호필름 구조, 제품 및 적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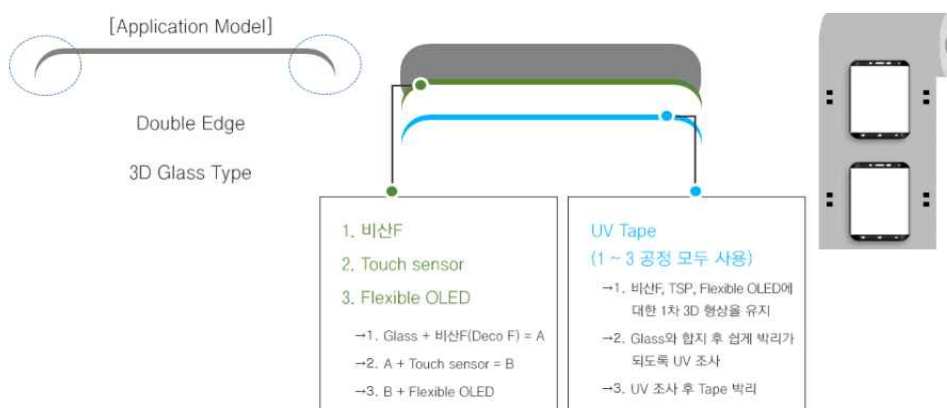


*출처 : 동사 홈페이지

기능성 필름으로는 UV Guide Film, UV Dicing Tape, 비산방지필름(Deco Film, Anti-Scattering Film) 등을 제조하고 있다.

UV Guide Film은 3D 및 4D Edge Glass와 DECO(비산)필름 Lamination 시 Guide 역할을 하는 필름으로, Touch Screen Panel, Flexible OLED에 대한 1차 3D 형상을 유지하고, Glass와 합지 후 쉽게 박리가 되도록 UV 조사를 진행하여 제조하고 있다.

[그림 9] UV Guide Film 주요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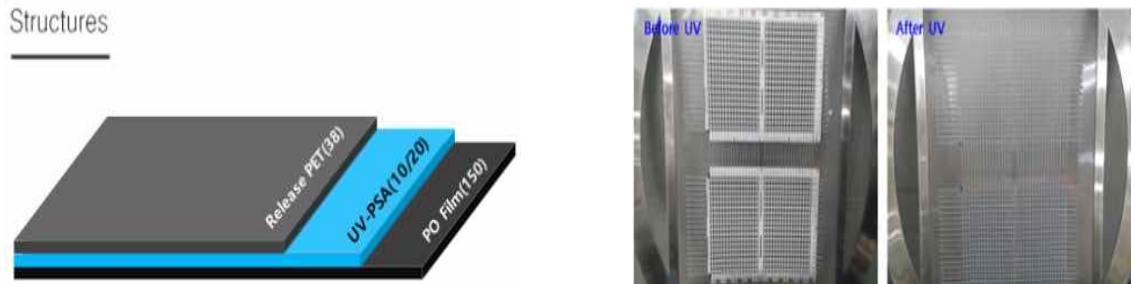


*출처 : 동사 홈페이지

UV Dicing Tape은 Sawing 공정 시 UV 조사 전 고점착, UV 조사 후 저점착 특성을 지닌 기능성 테이프이고, 비산방지필름은 투과율 91% 이상, Haze 1% 이하의 특성을 가지고, 스마트폰 Glass 표면에 인쇄성, 색상, 질감(DECO) 표현이 가능하며, 충격에 의한 Glass 파손방지 및 비산방지 기능을 지닌 기능성 필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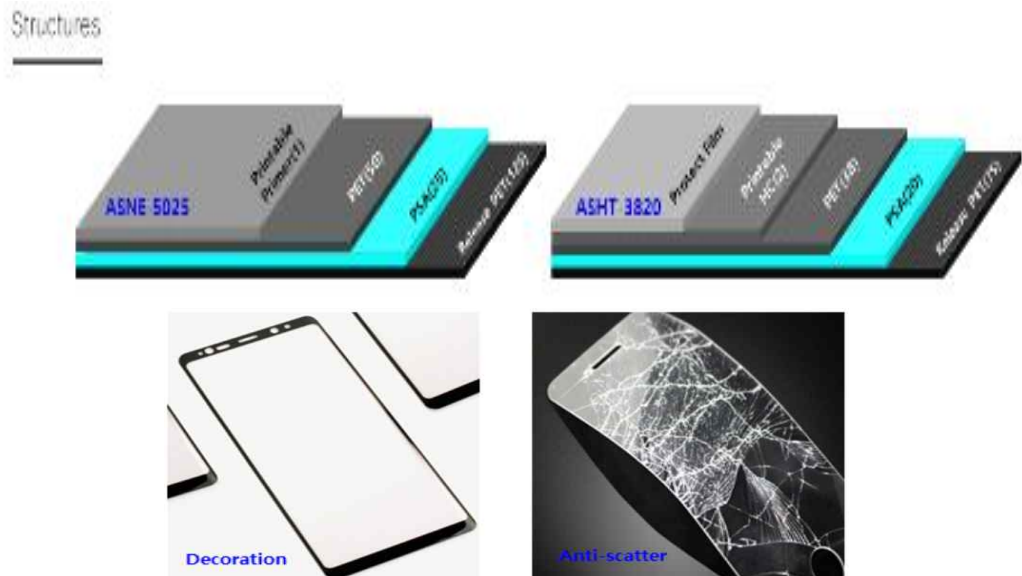
[그림 10] UV Dicing Tape 구조, UV 처리 전후 비교



*출처 : 동사 홈페이지

열차단 필름으로는 IR(Infrared Radiation) Cut Film을 제조하고 있으며 건축용 윈도우 필름, 자동차용 윈도우 필름으로 적용되고 있다. Window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필름으로 무기질을 사용하여 변색이 없고, 가시광선 영역의 투과율 극대화 및 적외선과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온도상승 및 온도 불균형 그리고 냉/난방기 효율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전문 창호용 필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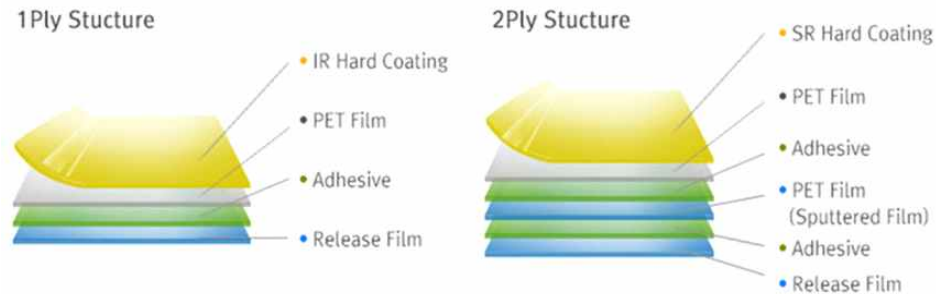
[그림 11] 비산방지필름 구조, 기능



*출처 : 동사 홈페이지

건축용 윈도우 필름은 냉/난방비 30% 이상 절감이 가능한 에너지 절감, 자외선 99.9% 차단으로 피부노화방지, 파손에 의한 2차 위험방지 및 안전방법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 자동차용 윈도우 필름은 냉방 부하감소에 의한 에너지비용 절약, 눈부심 방지, 태양열에 의한 열점 제거 등의 특징이 있다.

[그림 12] 열차단 필름 구조



*출처 : 동사 홈페이지

■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 및 개발

동사는 종속회사인 카나비스메디칼(주)를 통해 대마초의 주요성분 중 인체에 유익한 카나비노이드(CBD: Cannabinoid)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 제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대마초 관련 제품의 입법화가 될 경우 의료용 치료제, 식의약품, 뷰티용 제품 등에 접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CBD는 환각 작용이 없고 자폐증, 치매, 뇌전증 등 신경질환 및 진통 효과가 입증되어 국외 의료업계에서 각종 치료제로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식의약품, 뷰티용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기업부설연구소(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2001년 인정받고 다수의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특허등록 등을 통해 당사의 IP를 보호하고 있으며, 핵심 특허를 활용하여 관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량 기술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기술적인 진입 장벽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5] 주요 기술개발 실적

Item	내용
편광필름 Spin Coating	편광필름에 기능성막을 도포시키고 Spin하여 코팅 건조하는 Spin Coating 장치
IR-Cut필름	Window(차량, 건물)에 사용되어 IR과 UV를 차단함. 에너지절감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투과율, 색상 제어 가능
모니터용 보호필름	편광필름용 보호필름. 모니터용 피착제로 쓰이는 Antiglare 필름에 부착되어 박리력, Wetting성, 대전압의 성능 발현
PDP 칼라필터	PDP의 리모컨 오작동을 방지하고, 색상을 선명하게 하는 색보상 기능을 갖는 칼라필터
Dicing 필름	반도체 Sawing 공정 시 Chip Flying을 방지함. UV 조사 후 제거가 용이
UV Guide 필름	3D Glass용 공정용 보호필름으로 AS 기능을 추가하여 이물혼입을 방지하고, UV 조사 후 제거가 용이

*출처 : 오성첨단소재

IV. 재무분석

최근 2개년 연속 매출 급증 및 순이익 기조 유지

동사는 2017년 매출 급감 이후 2개년 연속 매출 급증세 보이며, 2019년 매출은 2017년의 2배가 넘는 660억 원대의 매출 시현하였으며, 꾸준한 흑자기조 유지하며 외형성장세 지속 중에 있다.

■ 2개년 연속 매출 급증 등 외형 확대세 지속

동사는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산화를 위한 반도체, OLED, 폴더블 등의 소재 기술 개발이 견인한 필름 사업부문의 성장으로 최근 2개년 매출 급증세 이어가며 고정비 효과로 이익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9년 매출액은 666억 원으로 2017년(306억 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020년 들어서도 성장 기조 이어가고 있다.

- 영업이익 추이 : 2017년 8.53%, 2018년 1.65%, 2019년 2.90%
- 당기순이익률 추이 : 2017년 3.47%, 2018년 12.47%, 2019년 21.92%

[그림 13] 동사 연결기준 포괄손익계산서 분석(2017~2019)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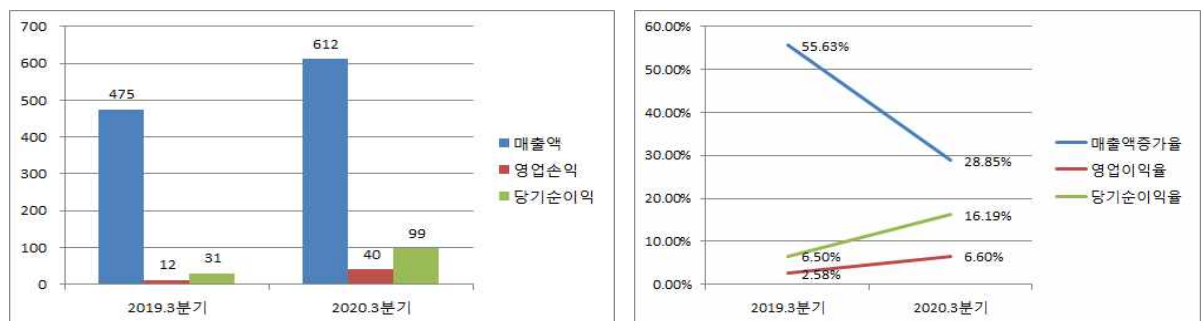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매출액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그림 14] 동사 연결기준 포괄손익계산서 분석(2019년 3Q, 2020년 3Q)

(단위 : 억 원)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매출액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2020년 외형 확대세 지속

2020년 들어서도 일본 무역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양호한 업황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OLED 및 편광용 보호필름 제조 등 동사의 주력 사업 분야의 경우 관련 제품 생산라인의 풀가동을 넘어 자체 생산 CAPA를 초과하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문 물량에 대응하고자 동사는 올해 상반기 도공 5호기의 증설을 완료, 본격적 양산에 들어갔으며, 매출 확대를 바탕으로 이익 개선세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3분기 : 매출액 612억 원, 영업이익률 6.6%, 당기순이익률 16.19%)

■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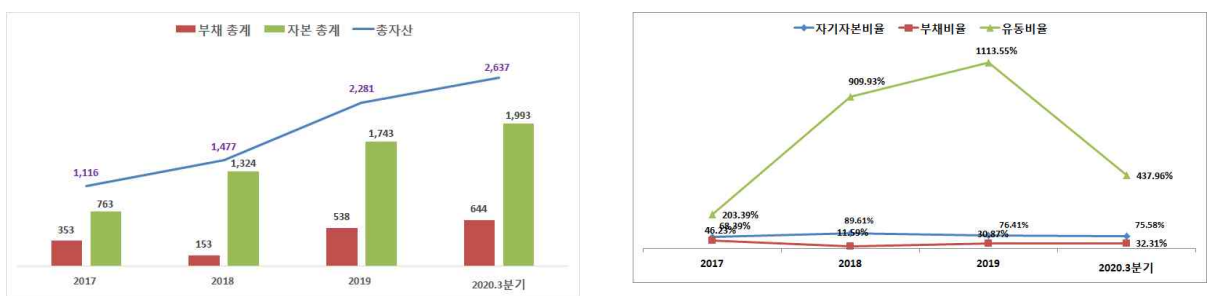
동사의 사업은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업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고정 비용이 높고 투자시점에서 양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수요 증가에 빠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사의 경우, 수년간 대량 생산으로 축적된 양산 기술력을 보유중인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생산 리드타임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재무유동성을 확보 중에 있으며,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 중에 있다. 동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최근 년 간 80% 내외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 중에 있으며,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역시 업종 평균 대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부채비율: 2017년 46.223%, 2018년 11.59%, 2019년 30.87%, 2020년 3분기 32.31%
- 유동비율: 2017년 203.39%, 2019년 909.93%, 2019년 1,113.55%, 2020년 3분기 437.96%
- 자기자본비율: 2017년 68.39%, 2018년 89.61%, 2019년 76.41%, 2020년 3분기 75.38%

[그림 15]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2017~2019, 2020. 3Q)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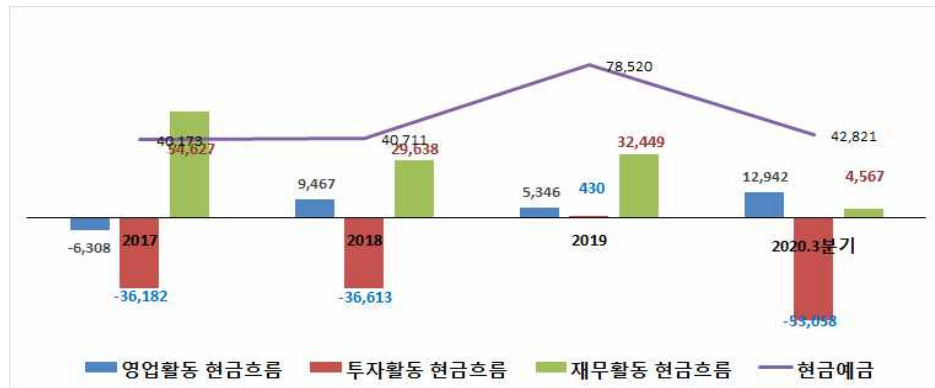
■ 풍부한 현금성 자산 보유

동사는 최근 2개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유상증자, 사채발행 등의 대규모 재무활동을 통해 투자활동의 현금흐름을 충당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시장대응과 투자 활동을 위해 충분한 현금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785억 원에 이르는 현금예금(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을 확보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금흐름 양호하고 재무유동성 우량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2017~2019, 2020. 3Q)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관광판용 보호필름을 주력제품으로 성장세 지속

동사는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 중 관광판용 보호필름, 복합소재(기능성 필름, 공정용 보호필름)를 주력제품으로 사업 영위 중에 있는바, 그 중 관광판용 보호필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들어 그 점유율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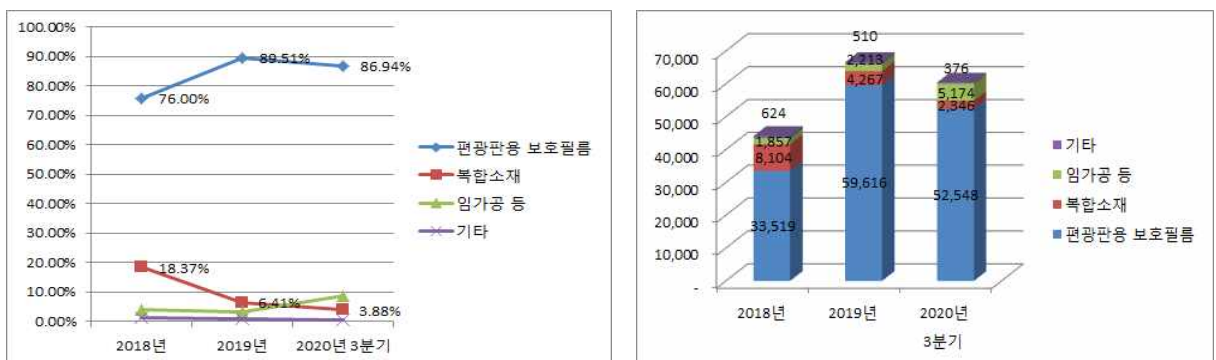
한편,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대규모 첨단, 장치산업이자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성(크리스탈 사이클)을 가진 사업임을 고려할 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재무융통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사의 경우 영위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보유 중에 있으며,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하며 재무융통성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바, 향후에도 안정적 외형 성장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력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의료용 대마사업 투자 등 사업다각화를 위한 노력 지속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의 가속화, 디지털화가 지속되는 경우 이에 따른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의 수요가 증가해 향후 회사 업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7] 주력 제품 매출구조 분석(2018~2019, 2020. 3Q)

(단위 : 백만원, %)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안정적인 납기 대응을 위한 설비 증설과, 의료용 마리카나 사업 투자 확대

동사는 고객사 주문량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납기 대응을 위해 2공장 5라인을 증설하여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 다각화를 위해 카나비스메디칼을 설립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마리카나 사업 본격화하고 있다.

■ 안정적인 납기 대응을 위한 설비 증설로 경쟁력 강화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가장 큰 수요처인 TV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투자시점에서 양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수요증가에 빠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주기적 시장 상황에 따라 주력제품의 세대교체 및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이고, 전, 후방 산업의 공동 발전이 필요한 산업이다.

동사는 자체 생산능력(CAPA) 초과 주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OLED 및 편광용 보호필름 제조 및 공급을 위한 설비 증설 추진을 목적으로 2019년 산업은행으로부터 150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제품 생산라인이 풀가동 되고 있으며, 수익성 극대화 차원에서 보호필름 제조에 일부 수입되어 왔던 제품들까지 내재화를 통해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최근 동사는 고객사 주문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납기 대응을 위해 2공장 5라인 설비 증설을 완료하여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이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와 원가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효과가 동시에 기여한 결과로, 향후에도 실적호조와 설비 증설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8] 동사 주요고객사



*출처 : 동사 홈페이지



■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 투자 확대

동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2018년 1월 카나비스메디칼을 설립하고 종속회사로 편입하고, 초고령화 시대 진입 시 사회적 문제로 예상되는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예방 효과가 검증된 의료용 마리화나 기술 경쟁력 마련에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잡고 의료용 대마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다만, 아직까진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카나비스메디칼은 설립 이후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 100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마리화나 사업에 진출하여, 30억 원 가량의 연구비를 투입해 대마초 활성물질을 활용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UN 마약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의 6가지 권고 사항중 하나인 1961년 ‘유엔마약 단일협약’ 마약등급Ⅳ으로 분류돼 있는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마약등급에서 제외하라는 WHO 권고를 수락하는 투표에 따라 대마초가 마약등급Ⅳ에서 제외되고, 최근 미국 대선의 승자인 조 바이든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동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마리화나 제품 제조 및 유통 라이선스를 보유한 미국 MSC와 현지에 합작법인인 ‘메디카나’ (MEDICANA)를 신규 설립하고, 미국 메니카나사의 우울증 치료제 수입을 시작으로 마리화나 의약품의 국내 사업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향후 수입 의약품의 식약처 인증 접수를 진행하고, 인증 완료 후 해당 제품을 전국 약국 및 병원을 대상으로 유통할 계획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보호구역 내에 축구장 20배 크기의 마리화나 농장용 토지를 매입하여 연간 7000톤 이상의 마리화나 직접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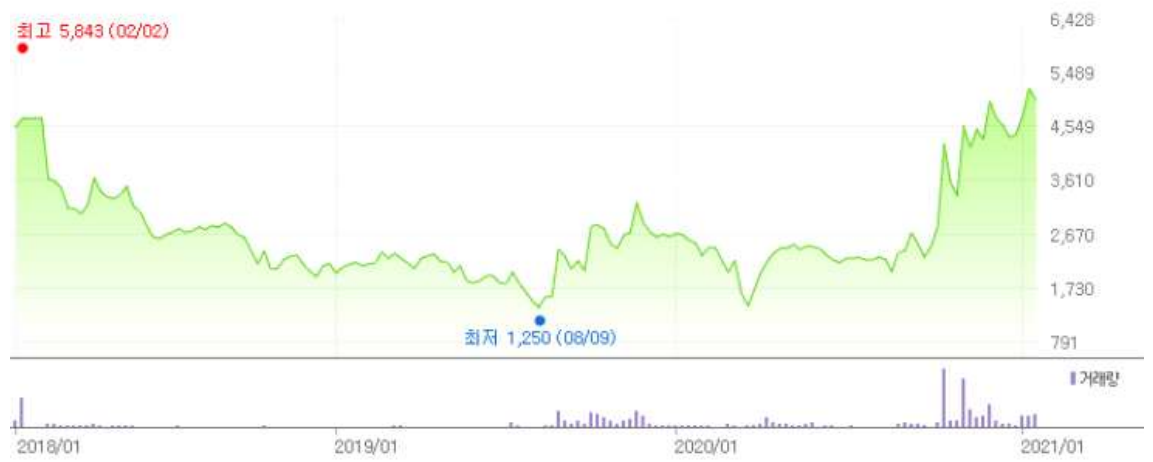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1년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9] 동사 3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 네이버 금융(2021년 1월 22일)